

부산의 풍토, 부산문화, 부산사람

The Tradition, Culture and People in the City of Pusan

이왕주 / 부산대 사범대학 윤리과 교수
by Lee Wang-Ju

부산에서의 인문학의 운영

먼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을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나는 인문학자다. 전공이 무엇이나 물을 때도 나는 인문학이라고 답한다. 인문학? 대개는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대학에서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전공학과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러 호기심 많은 사람은 인문학 중에서 어떤 분야냐고 묻는다면 한때 서양현대철학을 공부했다고 답해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런 전공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공영역에서 책 읽고 글쓰고 가르쳤다. 그러다가 불혹의 나이에 이를 무렵쯤에 우리가 서양철학을 이토록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하게 되었다. 가령 내 학위 논문테마인 독일 현대철학자 하이데거의 사상을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작업들이 극동의 한반도 남쪽 끝 한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한 생애를 걸어서 할만한 일인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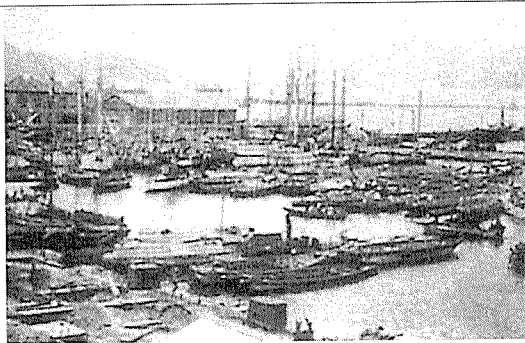
한 번 뿐인 인생에서 모든 시간을 바쳐 하는 일이라면 모름지기 내 자신이나 내 이웃,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내 땅 내 조국을 위해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하

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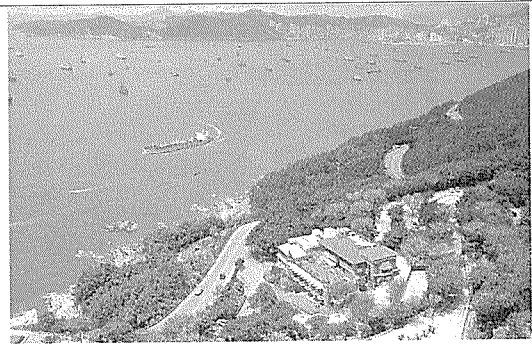
이른 바 학문에서의 탈식민성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서 나는 전공 타이틀을 인문학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인문학이란 대강 말하자면 한 사람이 공부길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때와 터에 연관시켜서 새롭게 의미화 논리화시키는 정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이것은 삶에서 걸도는 모든 앎을 자신이 디디고 선 땅의 번지 위에 자리매김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나는 이 인문학을 운동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싶어서 의기투합하는 학자들을 주위에서 찾아보았다. 둘러보니 의외로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곧 모임을 만들었다. 새로운 인문정신의 부활을 목표로 삼고 '해석과 비판을 위한 모임' (약칭 해비모)이라는 단체를 구성했던 것이다. 주로 3, 40대의 젊은 소장 학자들로 대학에 현직 교수로 있거나 시간을 맡는 강사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분야에 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자 지망생들로 약 30명 남짓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행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3시에 각 학문 분야에서 인문학과 탈식민성 문제에 비전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참가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서 누구라도 와서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소는 해운대의 추리문학관 4층을 양해받아서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잘 되었다. 많을 때에는 한 번에 50여명씩 몰려들어서 공간이 협소할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년, 4년째로 접어들면서 점점 수가 줄어들더니 어떨 때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발표자와 회장, 그리고 총무 셋만 앉아서 했던 적도 있다.

작년 10월에는 해비모와 아주 성격이 비슷하고 회원 일부가 중복되기도 한 부산의 인문학연구모임인 '인문학 연구회'와 통합해서 '한국 인문학 연구회'를 새롭게 출발시켰지만 이 역시 지금 잘 되지 않아서 한 번 발표할 때마다 10명 안팎의 회원들이 겨우 참석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것이 내실없는 내용 때문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발표했던 논문들, 그리고 초청했



1900년대의 부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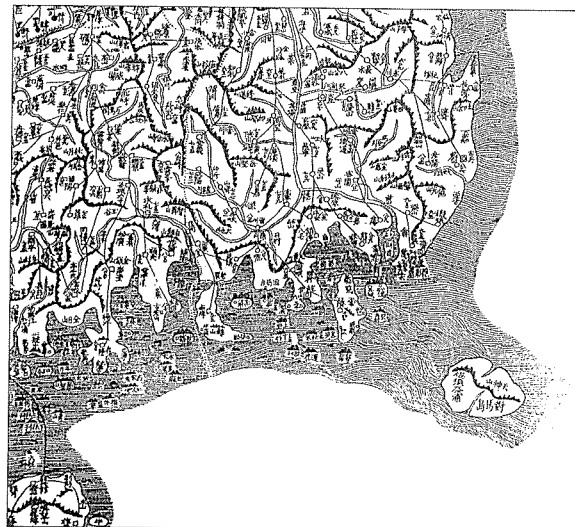
태종대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부산항

던 학자들은 단언컨대 서울, 그리고 지방의 어느 학술단체에 비해도 손색 없으리라고 자부한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우리는 해비모의 성격에 부합하는 학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초청해서 발표회를 가졌다. 그동안에 우리가 초청하여 발표했던 학자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의 모임이 결코 만만한 동네 학자들의 친목모임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모임이 요즘은 시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기령 대구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서는 계명대학교가 주도하여 수십년째 이어오는 목요 철학 세미나가 수백회의 횟수를 거듭하며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겨우 오륙십회에 지쳐버린 우리는 철학 세미나를 사백회 오백회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 전주,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런저런 순수 학술 모임들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들었다.

철학분야를 두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일곱개 정도의 전국 규모의 철학회가 있다. 세 개가 서울에 있고 두 개가 대구에 있으며 광주와 대전에 각각 하나씩 있다. 물론 그런 학술단체의 본부가 있다는 것이 곧 그 학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변인구의 두께만큼 증언해주는 척도라 여겨진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도시에 순수학문의 왕이라는 철학이 학술활동의 한 장르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다른사례가 또 있다. 예총지부가 발간하는 저널은 지역 순수예술의 홍보창구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대도시는 말할 것 없고 인구 십수만의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지령 수십호가 될만큼 꾸준히 발간된다는 그 책자가 부산에서는 겨우 작년 봄에야 비로소 창간호를 만들어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문학과 지성사'나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등단하거나 시집 소설집을 낸 시인 소설가가 이 부산 땅에 전무하다시피하는 것 또한 지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부산포를 둘러싼 영남권. 대마도도 한 권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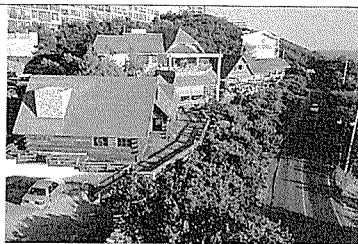
극히 기이한 일에 속한다.

아무튼 이런 사례들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부산성의 본질이라는 근원문제 앞으로 이끌어간다. 과연 대도시 부산이 순수이론 분야나 인문학에서 취약함을 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각자의 노력부족, 비정치적 성향, 그리고 정체성 결여, 상업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이유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결과들은 아닐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동래군과 부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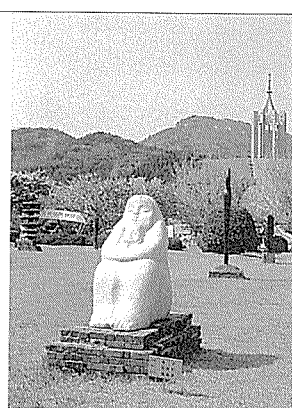
김정호의 '청구도'에 보면 지금의 부산광역시 를 아우르는 면적은 온전히 동래부의 관할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동래라는 지명이 큰 붓의 필체로 도드라진다. 물론 교통망도 동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부산이라는 훨씬 작은 붓글씨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남포동 어디쯤일 것으로 짐작되는 남쪽 해변끝의 자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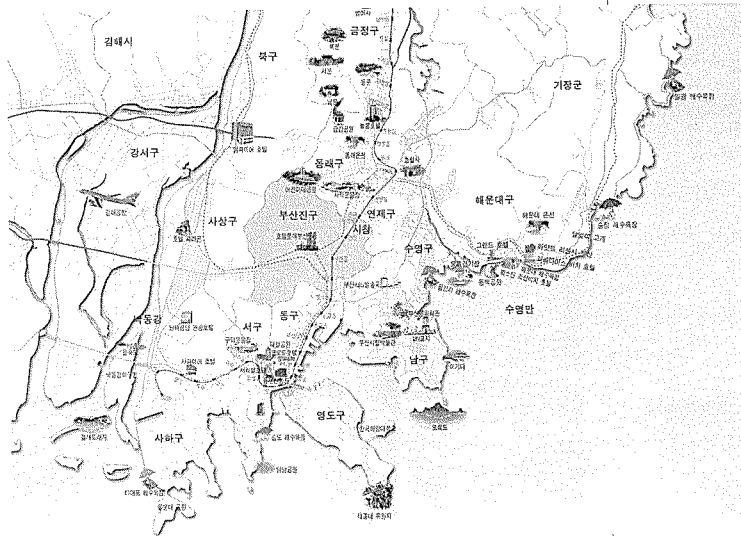
달맞이 고개



초량 외국인 상가



응두산 공원



만 어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은 아득한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도 지긋한 동래의 토박이 노인들은 부산포를 동래에 딸린 배닿는 자리쯤으로 생각한다. 한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부산 역사의 뿌리는 지금의 중심지인 부산포가 아니라 부산의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난 동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두 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산포가 거대 도시화를 강요받게 되면서 모든 형편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 두개의 사건이란 첫째는 1876년의 강화조약이고 둘째는 1950년의 6·25사변이다.

사적에 따르면 이 지역은 통일신라의 35대 경덕왕 재위 연간인 757년에 동래군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그보다 더 아득한 세월 전에 이 동래지역에는 독립된 수국가 혹은 정치집단이 존재했다. '삼기사기'에서는 그것을 거칠산국으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그것을 장산국 혹은 내산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라는 신라 4대왕이었던 탈해왕 연간에 당시로서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신라에 의해 병탄되었다.

어쨌든 그 이후 고려, 조선 시대를 통해 경상도 남단의 정치, 경제의 관할거점으로 중시되던 동래군은 임진왜

란 후에는 특히 군사 요충지로 주목받게 된다. 임란 때에 외병들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동래성이 적의 공격을 받은 지 겨우 네시간만에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곳의 군사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의의를 헤아려 알게 된 조정에서는 그 이후 동래부사에게만은 단독 군사 작전권을 주어서 파발로 전해지는 운허없이 유사시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연유로 조선조 말기에 이르면 동래군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지위는 한결 격상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은 1876년의 강화조약으로 부산항이 개방될 때까지 변함없었다. 이것이 김정호의 청구도에 동래가 아주 굵은 붓글씨로 큰 도시로 강조하게 되고 부산이 아주 작은 글씨로 한 해변의 어촌으로 표시되었던 역사적 이유이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이 나라를 강제로 개항시키켜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관문으로서 그리고 주 주거지로 부산포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식민경영을 위해 비록 조국을 떠나있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나라에 가까운 곳에 주저앉고 싶은 응석삼리의 반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랑에 지금도 고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왜정 당시의 일본인 집단 주거지는 바로 관부 연락선 뱃머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였다.

어쨌든 어선 몇 척이 한가롭게 떠있던 부산포는 졸지에 식민세력들이 드나드는 관문 부산국제항으로 갑작스러운 성정을 강요받게 된다. 하나의 거대도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요즈음 '한국형 신화' (Korean Legend)라고 외국학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신도시 신화'의 역사는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이 동래를 합병 흡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논리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



자갈치시장



부산역



부산시립박물관

라도 행정적으로는 부산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동래는 여전히 긴장 속에서 부산과 갈등하는 대항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 역학관계는 최소한 식민시대의 속도와 리듬에만 일임되어어도 상황이 현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부산은 동래의 견제 속에서 비교적 천천히 시간의 수순을 밟으며 성장해 갔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의 두 번째 사건, 즉 6·25사변은 부산과 동래라는 갈등 구도자체를 와해시켜 버렸다. 전시 중의 임시수도가 들어서고 모든 땅이 피난민들로 득실대기 시작하면 부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거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모양새가 초라하고 꺾죄죄했지만 이제 모든 차원에서 동래와의 경쟁 파트너는 아니었다. 명실공히 모든 중핵은 부산으로 옮겨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쨌든 부산이 동래를 흡수한다는 것은 정신사의 관점에서 보면 필통을 가방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필통 안에 넣는 요술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인문학자인 나의 시각에서 볼 때 부산이 동래로 통합되지 않고 동래가 부산으로 통합되었던 이런 역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런 요술이 아니라 어떤 상처다. 그것은 치유하기 어려운 두 개의 상처를 남겼는데 첫째는 우리 전통의 절맥이다. 동래적인 것의 몰락과 부산적인 것의 흥기는 확실히 그런 맥락을 품고 있다. 즉 그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 우리 땅에서 우리 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온 모습 살이의 터가 하루아침에 와해됨을 뜻하는 것이다. 수백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발로 다져만든 촌락을 댐 건설 때문에 단숨에 수장시켜버리는 무지막지한 근대화 마인드도 따지고보면 이런 선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은 왠지 불편하고 낡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반면 새것, 외래의 것은 새롭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합리적이라는 편견 또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다.

둘째는 가치전도다. 반상의 계급개념이 부빈의 계층개념에 의해 급격하게 대체되어가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근대화의 가장 역겨운 모습인 천민자본주의 혹은 졸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포의 삶의 터틀을 급격하게 채워갔던 이 최초의 신도시 시민들의 모럴은 전통적인 것과는 아

주 다른 것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동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도덕적 원리의 혼란속에서 일부는 분명히 '돈이면 최고다'라는 천민자본주의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았겠는가 짐작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분명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진 물음, '왜 순수인문학이 부산 땅에서는 그토록 무력하기만 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답의 일부를 이룰 것이다.

부산성의 본질로서의 대중주의

부산성의 본질은 대중주의에 있다. 물론 이것은 '부산을 이루는 것은 동래군이 아니라 부산포다'는 앞서의 역사적 일별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대중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를 가진 단단한 패러다임이며 그것을 제 폭과 깊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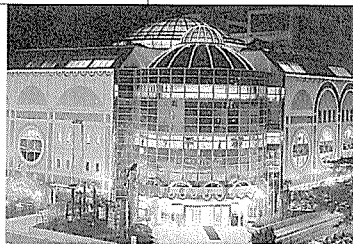
산과 바다의 도시인 부산은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춘 도시 중의 하나다. 높이가 해발 오륙백미터가 넘는 산들이 도심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서 있다. 도시안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산과 구릉을 비집고 도시가 들어서 있는 느낌을 준다. 바다는 북동쪽의 송정해수욕장에서 남서쪽의 다대포해수욕장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다채로운 굴곡을 이루며 물과 잇대어져 있다.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등은 그러한 만남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라 할만 하다. 산을 등에 업고 바다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이 도시가 경관에 관한한 신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는 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랑동난(夏凉冬暖)의 기후 또한 이 도시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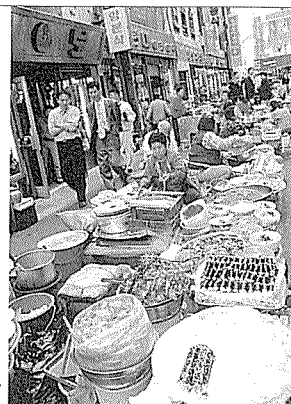
1) 물론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신도시'라는 용어의 개념 맥락은 전문가들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고 정책적 이유에 의해 급조되듯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동래 허성청 온천



광복동 먹자골목

닌 천혜의 조건이다. 여기서 흔히 보게 되는 겨울의 반팔티나 여름의 긴팔 옷은 꼭 패션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합리적 실용정신의 발로일 경우가 더 많다. 아무튼 겨울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함을 여름에는 노동하는 자들에게 서늘함을 선사해주는 이 도시는 이러한 기후의 특전만으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유혹일 수밖에 없다.

인문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어디서나 눈 앞을 막아서는 산이 보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뽕뽕이 흩어져서 솔로로만 뿔리는 비정치적 기질이 특징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풍부한 노동시장과 천혜의 경관 때문에 일함과 즐기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에 묶이는 남방주의적 삶의 태도가 시민들의 일반특성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주의의 뿌리가 되는 부산의 도시적 여건은 다음의 세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첫째는 개방성이다. 도심을 마구 형클어 놓듯이 들어선 산들 때문에 분지가 없는 이 도시는 분지도시의 폐쇄성이 보이지 않는다. 분지도시가 폐쇄성을 보이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분지 대신 도처에 열려진 길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정신의 개방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믿어진다.

둘째, 민주성이다. 이것은 동래군이 부산포로 흡수되는 역사적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모든 것은 평등하며 일체가 기호와 우연 속에 주어졌다는 믿음은 이 도시민들에게 선험적 의식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유희성이다. 바다와 산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을 보다 발랄한 기운으로 즐기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시의 본질을 이루는 이러한 대중주의는 천박한 대중성으로만 넘겨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중 공연 예술분야에 배출한 기라성같은 인재들과 최근 이 도시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부산 국제영화제 등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속 제

이제 이 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해마다 기울어지고 있는 실물경제이다.²⁾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히 논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자기 반성을 거치지 못하고 진행되어온 이 도시의 본질인 대중주의의 한 파국점으로 보인다.

물론 처방은 화이부동의 긴장 속에서 재건되어야 할 부산포와 동래군의 길항 콘텍스트이다.

그것은 곧 대중주의와 인문정신의 화해를 뜻한다. 이제 이 도시에 걸맞는 인문학적 상상력들이 절맥된 동래군의 정신사적 맥락 위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제도를 통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개인들 각자의 자각과 성찰을 통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연대하고 함께 쌓아나가는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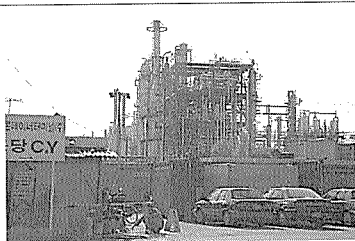
그래서 마땅히 이제 이 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인문학적 상상력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때라야 이 부산에서도 가령 '한국 인문학 연구회'의 몸부림이 메아리 없는 고독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게 되고 또 이 도시의 체형에 맞는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이 도시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순수이론 연구활동들이 학회차원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경제는 1980년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가령 1985~1994년 중의 지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우리나라의 6대 도시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9.5%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인당 지역 총생산도 80년대 초반까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지만 90년대 들어서서는 전국의 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구조 분석, 1996. 8. 2쪽 참조.

3) 이런 제안들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 인문학 연구회 회원이며 이 활동의 전위에서 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영민 교수의 다음 저술을 참조. 김영민, 진리 알리 무리, 철학과 현실사, 1998.



항만부근의 공장



일제 건물이 남아있는 도심거리



광안대교 공사